

2024-19호

DaWinKS Weekly Report

DIGITAL(CRYPTO) ATM · PAYMENT

DPEC PLATFORM



Contents

1. Company Activity

- 다원KS - SBA 지원 메타버스 홍보 영상
- Digital ATM 운영 현황
 - : 외화 환전, 외화 입금(원화 충전), 디지털머니 출금, 해외송금, 택스리펀드(시내환급)
 - 이마트24 : 삼청동점 / 명동중앙점 / 스타필드코엑스몰2호점
 - 이랜드리테일 뉴코아백화점 : 강남점 / 부천점
 - 이랜드리테일 NC백화점 : 송파점 / 신구로점 / 강서점
- 다원KS 소식
 - 다원KS, 글로벌텍스프리 대형쇼핑몰 진출 협력
- 파트너사 소식
 - 토큰스퀘어-KODA, 원화 기반 지급수단 사업 추진 MOU 체결
 - [인터뷰] 수호아이오 "میم코인 상승, 수요 있기 때문... 심리적 대응이 중요"
 - 포블-오디션벤처스, 웹3 기반 기부문화 확산 업무 협약
- 다원KS - 혁신외환금융서비스
- Digital ATM/DTM & Crypto ATM/CTM 소개

2. Blockchain News

- "600만명 이용...가상자산 키워 디지털금융 허브 될것"
-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본격 출범...RWA 시장 '정조준'
- K-핀테크 해외진출 성공하려면..."무조건 현지 OO 있어야 한다"
- "토큰증권, 객관적 가치 평가로 시장 발전·투자자 보호 모두 잡는다"
- "AI 거품 꺼지고 있어...비용 대비 수익성 등 문제 부각"
- 호주 증권거래소, 비트코인 현물 ETF 연내 상장 예정
- 비자 "USDC, USDT 제치고 스테이블코인 거래 시장 주도"
- [블록체인 디지털ID 혁신②]블록체인 모바일 신분증 리더 대한민국
- "유럽과 두바이의 암호화폐 규제...유럽의 MiC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여권이다"
- 홍콩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ETF 거래 개시..."첫날 반응 기대 이상" vs "기관수요 기대 말아야"
- 물가 뛰고 인건비 날고... 美 댄친 '금리인하 불발 공포'
- 항공기도 '조각투자'...갤럭시아머니트리, 혁신금융 지정
- Early Bitcoin Investor Charged with Tax Fraud
-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6일 연속 자금 유출... 블랙록도 첫 순유출 발생

Contents

3. Blockchain Financial

- [데이터뉴스]비트코인 ATM 10달새 5000대 증가
- 네카오 블록체인 사업을 왜 'UAE'서 해야 할까?... "국내 귀환 유도해야"
- 블랙록, "국부펀드 및 연기금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 참여 전망"
- "아직 한 발 남았다"... '롤러코스터' 타는 비트코인, 남은 호재는
- Apple poaches Google AI staff, creates 'secretive' laboratory: Report
- 미국 법무부 "비트코인은 돈"으로 규정-린 알덴 "슈뢰딩거의 돈이냐" 비판
- 러시아 '암호화폐 금지령' 9월 조기 시행된다... "유통·조직 금지"
- 암호화폐 거물들 "SEC와 싸우는 컨센시스 지지"
-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채굴자 수익 75%→35% 급감
- "법인 투자·비트코인 ETF 허용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 경쟁력 키워야"
- '상폐'에 해외 전전하던 페이코인 투자자, 韓 시장으로 집결

4. DaWinKS



1. Company Activity

다윈KS - SBA 지원 메타버스 홍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rL9JKKL0sGo>

1. Company Activity

다윈KS - SBA 지원 메타버스 홍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q25_pb01BUl

1. Company Activity

Digital ATM 운영 현황

외화 환전, 외화 입금(원화충전), 디지털머니출금, 해외송금, 텍스리펀드(시내환급)

◆ 이마트24

삼청동점
- 2023.11.15



명동중앙로점
- 2023.12.01



스타필드코엑스몰2호점
- 2024.01.23



1. Company Activity

Digital ATM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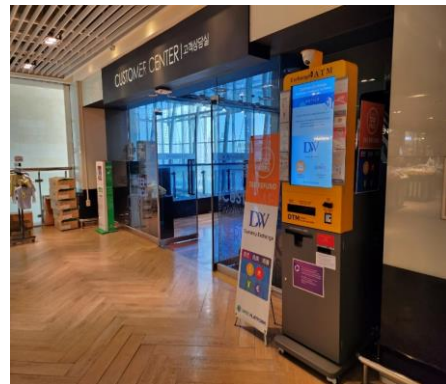
외화 환전, 외화 입금(원화충전), 디지털머니출금, 해외송금, 텍스리펀드(시내환급)

◆ 뉴코아백화점

강남점
1층 후문 주차장산옆
- 2024.04.18



부천점
4층 고객상담실앞
- 2024.04.19



1. Company Activity

Digital ATM 운영 현황

외화 환전, 외화 입금(원화충전), 디지털머니출금, 해외송금, 텍스리펀드(시내환급)

◆ NC 백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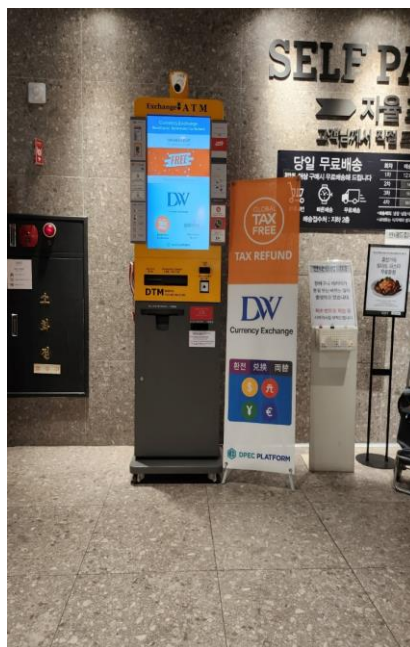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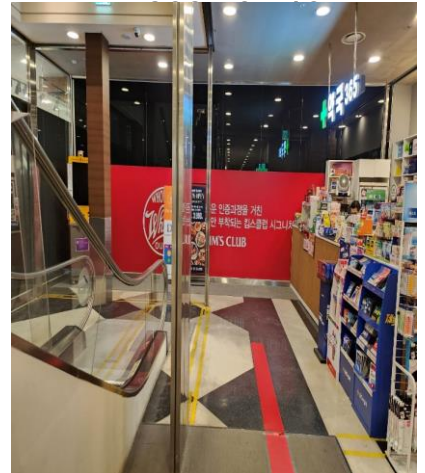
송파점
6층 고객상담실옆
- 2024.04.18



신구로점
지하1층 안내데스크옆
- 2024.04.19



강서점
지하1층 하행선
약국앞



1. Company Activity

다원KS, 글로벌텍스프리 대형쇼핑몰 진출 협력

- 관광객 편의를 위한 비대면 외화환전·시내환급 서비스 제공 확대



사진/ 다원KS 로고, 글로벌텍스프리 로고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벤처기업 다원KS(대표 이종명)는 최근 글로벌텍스프리(대표 강진원)와 협력하여 국내 대형 쇼핑몰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강남의 뉴코아백화점, 부천, 송파의 NC백화점, 그리고 명동의 도깨비마트에 디지털 ATM을 설치하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여권 인식과 안면 인증을 통합한 비대면 KYC(Know Your Customer) 서비스를 개발,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16개국 85종 법정화폐에 대한 직접 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다원KS는 국내에서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Crypto ATM 및 POS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 인증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단말기 성능 시험도 통과했다.

한편, 글로벌텍스프리는 아시아 최초의 텍스리펀드 전문 기업으로, 2005년 설립 이래 국내 주요 백화점과 명품 브랜드 등에서 국내 최다의 사후 면세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원KS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ATM 내에서도 텍스리펀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Company Activity

다원KS, 글로벌텍스프리 대형쇼핑몰 진출 협력



사진/ 다원KS의 DTM/Digital ATM,
CTM/Crypto ATM, QR Pay

다원KS의 이종명 대표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약 80% 수준으로 관광객 수가 회복되었다”며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한류 문화에 관심이 있는 관광객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늘리고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원KS는 이러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관광 산업과 핀테크 분야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1. Company Activity

토큰스퀘어-KODA, 원화 기반 지급수단 사업 추진 MOU 체결



오은정 토큰스퀘어 대표(왼쪽)와 조진석 KODA 대표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토큰스퀘어

토큰스퀘어(대표 오은정)는 한국디지털에셋(KODA·대표 조진석)과 원화 기반 지급수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디지털 피아트 토큰(Digital Fiat Token, 이하 DFT)'으로 명명된 민간형 원화기반 지급수단 사업에 필요한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토큰스퀘어는 DFT 사업의 시스템 구축 및 기술 개발을 전담한다. KODA는 전문 수탁기관으로서 관련 업무 노하우를 활용해 토큰스퀘어의 DFT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양사는 국내 오픈 인터넷 머니터리 시스템(Open Internet Monetary System) 구축 및 연구 개발에도 나선다.

1. Company Activity

토큰스퀘어-KODA, 원화 기반 지급수단 사업 추진 MOU 체결

오은정 토큰스퀘어 대표는 "이번 사업은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상응하는 다른 새로운 디지털 지급결제 수단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며 "DFT를 통해 디지털금융과 그에 따른 기술과 제도가 융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큰스퀘어는 올해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지난 3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DFT 사업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규제샌드박스)을 신청한 상태다. KODA는 KB국민은행과 블록체인 기업 해치랩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가 공동 설립한 디지털 자산 수탁기관이다.

1. Company Activity

[인터뷰] 수호아이오 "میم코인 상승, 수요 있기 때문... 심리적 대응이 중요"

수호아이오 박재현 사장



[인터뷰_블록체인투데이]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금융서비스 전문 기업 수호아이오에서 국내.외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박재현 사장입니다. 수호아이오 전에는 람다256에서 설립 초기부터 6년간 대표이사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사업을 했었습니다. 저는 1998년 에이전텍, 2000년 와이즈프리 2차례의 창업과 Exit 경험을 갖고 있고 동시에 2008년 삼성전자 상무이사과 2016년 SK텔레콤 전무 이사 등 대기업 임원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한 대표 프로젝트로는 삼성전자(상무이사)에서 삼성페이와 삼성 챗온 메세지 서비스 등의 개발을 주도했고 SKT(전무이사) 공유경제 플랫폼 히든 등 신규 사업 부문을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수호아이오에서 블록체인 상호연동 기반 금융 플랫폼인 터치스톤의 개발과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 Company Activity

[인터뷰] 수호아이오 "میم코인 상승, 수요 있기 때문... 심리적 대응이 중요"

◆수호아이오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수호아이오는 2019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국내 몇 안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창업 초기, 이더리움 공동창업자 조셉 루빈이 설립한 ConsenSys로부터 투자를 받은 국내 유일한 기업이자 22년 12월 Gartner 리서치를 통해 블록체인 금융 분야 주요 기업으로 소개될 만큼 국내보다 해외에서 유명한 회사입니다. 2019년 창업 초기에는 스마트컨트랙트 오딧 엔진을 개발하고 이를 사용한 컨트랙트 오딧 사업을 했고 현재에도 꾸준히 스마트 컨트랙트 오딧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메이드 클레바, 오아시스 틸스왑 등 웹3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들에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TO, RWA 등 디지털 자산 분야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토콜 상에서 발행된 디지털 자산의 상호연동과 이를 통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터치스톤 이라는 상호연동망과 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유통 프레임워크인 Plutos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권 파트너들과 RWA를 비롯하여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호는 국내에서 블록체인 코어 기술과 상호연동 기술, 스마트컨트랙트 보안 기술 그리고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랜 기간 람다256 대표이사를 맡으셨다보니 새로운 행보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수호아이오에 합류하실 당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항상 회사는 무한하고 직원은 유한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떠날 때가 되어 회사를 떠났고 마무리 못했던 도전을 위해 수호아이오에 합류했습니다. 아쉬움은 없습니다 다만 떠난 이후 회사가 더 성장했으면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당혹스럽긴 합니다.

1. Company Activity

[인터뷰] 수호아이오 "میم코인 상승, 수요 있기 때문... 심리적 대응이 중요"

그 간 블록체인 분야에서 느낀 점은 블록체인이 만능이다 라는 사고로는 실증적인 성공사례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 입니다. 실제 블록체인 앱들 중 대부분이 게임/NFT/Finance 분야입니다. 이러한 고민 하에 결국 저는 디지털 자산 기반의 금융이야 말고 블록체인으로 가장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수호아이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호아이오 박지수 대표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던 것도 있고요.

◆수호아이오에서 가장 힘쓰고 계신 부분은 어느 분야인가요?

사업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금융 분야에서 좋은 파트너이자고객을 찾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다양한 블록체인간의 디지털 자산 연동이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망과 이에 기반한 디지털 자산 개발 플랫폼이고, 서비스적으로는 Invisible Finance 입니다.

Invisible Finance는 수호아이오에서 추구하는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입니다. 한마디로, Invisible Finance는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소외되는 사람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말합니다. 일일이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커머스에 금융 서비스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이를 이용하는 것이죠. 가령, 여행 예약시 여행자 보험을 함께 이용하거나 골프 예약시 홀인원 보험이나 상해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것. 또는 커머스에서 명품을 구매 후 비싼 가격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수호아이오는 현재 200개 이상의 클라이언트와 파트너사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정되어있는 협업소식은 어떤 분야에서 주로 이뤄질까요?

기존 수호아이오는 그동안 많은 웹3 회사와 일을 했습니다. 여전히 웹3 및 메인넷

1. Company Activity

[인터뷰] 수호아이오 "میم코인 상승, 수요 있기 때문... 심리적 대응이 중요"

회사들에게 다양한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와 컨트랙트 오딧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활황과 더불어 신규로 웹3 및 퍼블릭 메인넷 회사에서 오딧과 금융 서비스 개발 요청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더불어 현재 금융권과는 디지털 자산의 상호연동과 RWA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어 상반기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STO의 경우 법률 미비 등으로 인해 실제 사업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수호아이오를 찾는 많은 금융권 파트너분들은 먼 이야기 보다 현실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실증 서비스 개발을 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수호의 Invisible Finance 전략에 동의하시고 이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호아이오는 STO, CBDC, RWA, NFT, Defi 등 블록체인 전방위에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카테고리중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력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수호아이오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은 터치스톤 상호연동망 기반의 디지털 자산 플랫폼인 Plutos와 컨트랙트 오딧입니다. 이를 통해, STO/RWA/NFT 등을 발행하고 DeFi를 구축하고 CBDC 또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응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디지털 자산이 발행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유통입니다. 결국 자산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통될 때 유동성이 확보되기 때문이죠.

장기적으로 이러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디지털 자산의 상호연동입니다. 서로 다른 블록체인 프로토콜상에 발행된 디지털 자산간의 투명한 상호연동을 미리 고려하고 상상하지 못하면 결국, 향후 다시 개발을 하거나 막대한 추가 개발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시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을 잃어 버리게 될 것 입니다. 때문에 수호아이오 Plutos는 상호연동망을 포함한 블록체인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1. Company Activity

[인터뷰] 수호아이오 "میم코인 상승, 수요 있기 때문... 심리적 대응이 중요"

있습니다.

◆올해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할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RWA&STO, Stable Coin&CBDC, Permissioned DeFi & Bitcoin Finance, 블록체인 상호연동

◆포스텍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전문가과정에서 강의를 맡아주셨는데요. 강의를 통해 어떤 내용들을 알려주실 예정이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키워드를 중심으로 RWA, Stable Coin 등 디지털 자산 시장과 기술 현황에 대해 상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이 활성화될 수록 유동성을 위해 다른 블록체인간에 상호연동이 아주 중요한 인프라와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이 1억원을 돌파하면서 투자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올해 코인시장의 가격적 전망은 어떻게 보고계신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모든 알트코인의 리더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코인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우상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등락이 있을 것이고 이를 어떻게 심리적으로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밈코인이 왜 오를까요? 결국 구매하는 수요가 있고 이에 기반하여 유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오르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비트코인 반감기와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 ETH가 소각되는 등 공급량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수호아이오의 로드맵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국내의 경우, 올해 선보인 터치스톤 상호연동망과 Plutos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계속 강화하면서 Invisible Finance에 적합한 금융 서비스를 파트너들과 함께 발굴해 나갈

1. Company Activity

[인터뷰] 수호아이오 "میم코인 상승, 수요 있기 때문... 심리적 대응이 중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지원중인 Besu, Avalanche 외에도 디지털 자산에 적합한 L2 체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Rollup 프로토콜 또한 꾸준히 늘려서 고객들이 필요한 블록체인 환경을 보다 쉽게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사업을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미 수호아이오는 해외 주요한 메인넷 재단 및 회사와 협업중입니다. 이를 더욱 강화하고 수호아이오가 한국과 해외 블록체인을 잇는 창구 역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블록체인투데이 독자분들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기술이 시장을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인터넷에 웹 기술로 시장을 만드는 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아직 블록체인 시장은 채 10년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저가 있겠지만 블록체인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주류 시장으로 편입될 것 입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블록체인 투데이를 통해 많은 정보와 인사이트 얻으시길 바랍니다.

1. Company Activity

포블-오디션벤처스, 웹3 기반 기부문화 확산 업무 협약



코인거래소 포블게이트가 웹3 기반 기부 플랫폼인 '벤처스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오디션벤처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사진:포블]

코인거래소 포블게이트가 웹3 기반 기부 플랫폼인 '벤처스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오디션벤처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벤처스네트워크는 플랫폼 내 활동을 통해 얻은 리워드로 기부할 수 있는 웹3 서비스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명한 기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보유한 블록체인 기술 및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방침이다. 포블은 선진 기부문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웹3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기부 문화를 촉진하고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번 협약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부 문화 형성에 있어 중대한 도약이 될 것"이라 말했다.

에릭 오디션벤처스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한 포블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양사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계에 기부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펼칠 것"이라 말했다.

1. Company Activity

다윈KS - 혁신외환금융서비스

Money Exchange

환전하러
은행까지 가야 돼?
NO!

은행, 환전소
급할때는 안 보이네!

환전의 신기술
이제, **무인환전기 DTM**으로
커피 뽑듯 간편하게 환전하세요!

여권, 신분증만 있으면
2천불까지 환전 가능하대구!

D T M
DIGITAL
ATM
DPEC PLATFORM
LAWLIN

Crypto ATM/ CTM

코인(암호화폐)도
가능하대구?

OK, 정말!
CTM 으로 고고씹~

Money Exchange

To exchange money
Have to go to the bank?
NO!

Bank, Currency exchange
I can't see when it's urgent!

New technology for currency exchange
Now, with the **DTM**,
Exchange money as easy as get a coffee!

If you have a passport or ID,
Can exchange up to \$2,000!

D T M
DIGITAL
ATM
DPEC PLATFORM

Crypto ATM/ C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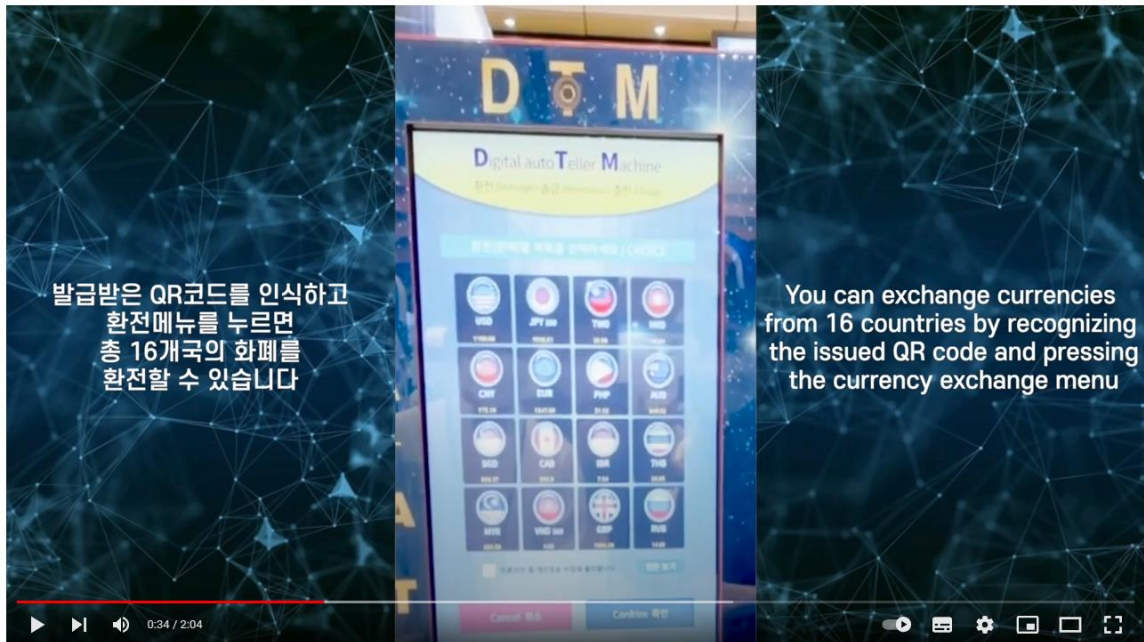
Coin (cryptocurrency) too
It's possible?

Okay, it's true!
Let's go to C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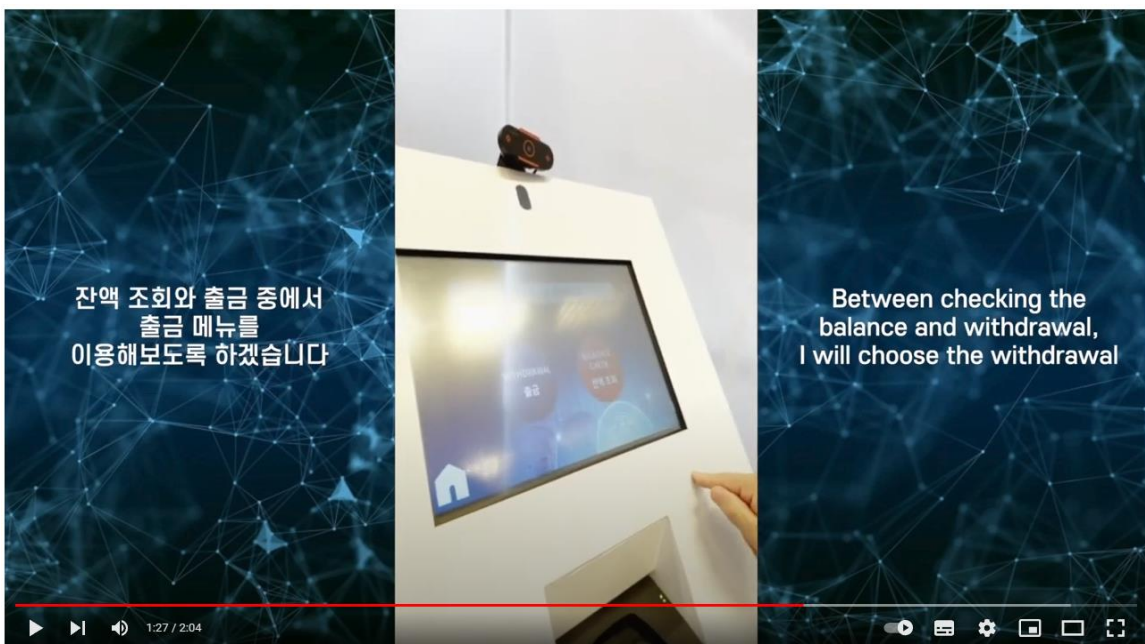
DPEC PLATFORM

1. Company Activity

Digital ATM/DTM & Crypto ATM/CTM 소개



Digital ATM / DTM & Crypto ATM / CTM - 영어, 중국어 자막



Digital ATM / DTM & Crypto ATM / CTM - 영어, 중국어 자막

2. Blockchain News

"600만명 이용...가상자산 키워 디지털금융 허브 될것"

■ 서울시, 가상자산 정책 포럼
오세훈 "가상자산, 글로벌 트렌드"
FDI로 금융친화적 환경 만들어야
규제 일변도 법령 대대적 정비



오세훈 서울시장의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허브와 가상자산 정책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글로벌 디지털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공개(ICO)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등 규제 일변도의 법령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2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2024 디지털 금융 허브와 가상자산 정책포럼'을 열고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통한 금융허브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https://v.daum.net/v/20240502205355439>

2. Blockchain News

"600만명 이용...가상자산 키워 디지털금융 허브 될것"

전 세계 및 주요국 가상자산 시장 규모

(단위: 달러)



※2023년 기준

자료: 스태티스타

오 시장은 행사 직후 기자와 만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을 언급하며 "글로벌 트렌드는 가상자산"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오는 6일에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글로벌 경제 혁신허브-서울'을 주제로 가상자산 산업을 포함한 서울의 핀테크 산업 인프라와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린다는 목표다.

이날 포럼에서는 서울이 디지털금융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필요한 전략이 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김묵한 서울연구원 경제경영연구실장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 총액은 2조 5000억 달러로 채권(130조 달러), 주식(109조 달러) 시장보다

2. Blockchain News

"600만명 이용...가상자산 키워 디지털금융 허브 될것"

크다"며 외국인 직접투자(FDI)로 디지털 금융 친화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을 유인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인프라·인센티브 지원에 그치지 않고 투자사와 기업들을 매칭한다는 것이다. 윤민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약체(DAXA) 정책본부장은 패널 토론에서 "기술은 국내에서 개발해도 벤처투자(VC)를 받기 위해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사례가 많다"며 "현재는 불가능한 수도권 금융 규제 특구 지정도 예외를 허용해 투자사가 다수 들어오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 육성을 위해 국회, 업계, 정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차세대 금융 중심지 선점을 위해 가상자산 인프라 구축, 토큰증권(ST) 등의 유치 경쟁이 세계 각국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조는 '금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에 한계가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산업법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법안)이 오는 7월 시행되지만,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 규율에 관한 2단계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가상자산 공개(ICO), 금융회사 투자 전면 금지 방침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CO는 새 가상자산을 발행하기 위해 투자자와 자금을 모으는 과정으로 기업공개(IPO)와 유사하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7년 가상자산 사기, 시세조종 우려로 ICO를 금지하자 여러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해외로 이탈하거나 우회해서 가상자산을 발행했다. 지난 2월 통합을 결정한 네이버 블록체인 프로젝트 '핀시아', 카카오의 '클레이튼'은 아예 아랍에미리트(UAE)에 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9~31일에는 서울포럼 2024의 부대행사로 비트코인서울 2024가 개최된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생태계 육성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고 디센터·서울 비트코인밋업, 하트비트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인 동시에 아시아 최대 규모다.

2. Blockchain News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본격 출범...RWA 시장 '정조준'



지난 2월 21일 열린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및 운영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강진모 아이티센 대표(왼쪽)와 박형준 부산시장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아이티센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본격 출범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2월 21일 부산시와 부산BDX컨소시엄이 체결한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및 운영사업 협약서'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BDX컨소시엄을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및 운영사업자'로 지정했다. 컨소시엄에는 대표사인 아이티센을 비롯해 메인스트리트벤처스, 바른손, 오콘, 하나은행, 하나증권, NHN클라우드, 위더스파트너스코리아 등 11개사가 함께 한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법인이사회는 김상민 초대 대표이사를 선임한 뒤,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 계획을 구체화했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주주인 부산BDX컨소시엄 11개사는 이날 출자금 100억원을 전액 납입했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실물연계자산(RWA)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래소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367>

2. Blockchain News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본격 출범...RWA 시장 '정조준'

다양한 자산을 손쉽게 거래하도록 해 자산의 유동성을 제고하고 부산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가 될 수 있도록 RWA 거래 시장을 개척할 방침이다.

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RWA 거래 선두 주자가 되고, 새로운 투자와 거래방식에 기준점이 되겠다"며 "분권형 거버넌스 기반 실물자산 디지털화 거래를 통해 모두가 새로운 시장을 경험하고, 블록체인과 혁신 금융이 융합하는 새로운 세상을 부산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2. Blockchain News

K-핀테크 해외진출 성공하려면..."무조건 현지 OO 있어야 한다"

| 금융위·성장금융, 하노이서 '핀테크 기업 베트남 진출 현장 간담회'



지난 22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핀테크 기업 베트남 진출 현장 간담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인포플러스

"핀테크 스타트업이 해외를 공략할 때는 무조건 현지 은행과 함께 협업하는 모델로 가야 한다. 핀테크 서비스의 기본인 수납·결제 등을 은행이 해줘야 하는데 은행의 업무가 빠진 핀테크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다."

김종우 인포플러스 대표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금융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성장금융이 주관한 '핀테크 기업 베트남 진출 현장 간담회'에서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나 서비스가 있어도 은행에서 돕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위원회와 우리금융지주가 23일 하노이에서 공동 개최한 '글로벌 데모데이 인 하노이'의 사전 행사 성격으로 추진됐다. 우리금융은 데모데이와

2. Blockchain News

K-핀테크 해외진출 성공하려면..."무조건 현지 OO 있어야 한다"

맞물려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디노랩(Digital Innovation Lab)'의 베트남 센터 출범식도 함께 진행했다.

간담회는 베트남 핀테크 산업 진출에 성공한 국내 대표 스타트업인 인포플러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인포플러스는 현지 은행과 금융사에서 필요로 하는 금융업무 관련 솔루션을 API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인포플러스가 베트남 공략에 성과를 낸 것은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베트남에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빠르게 대응한 덕분이다.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무현금(Cashless)' 정책을 등에 업고 QR코드 기반 모바일 결제로 영향력을 확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학비, 대출원리금, 보험료, 전기, 수도세 등 공과금을 비롯해 각종 요금을 기업이 고객을 직접 찾아가 현금으로 받고 수기나 엑셀로 입력하던 방식이 아닌 자동화를 통해 디지털로 전환한 '지급관리서비스(CMS)'에 기업들의 호응이 높다.

이를 결제·이체 등 은행의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한 것이 인포플러스의 강력한 경쟁력이다. 한국에서는 자동납부·수납이 오래전부터 당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기술이지만, 금융업이 낙후된 베트남을 비롯해 동남아시아에서는 이 같은 전산화가 매우 더디다.

베트남 자산규모 1위 은행과 맞손...현지 CMS 분야 독보적 지위

2. Blockchain News

K-핀테크 해외진출 성공하려면..."무조건 현지 OO 있어야 한다"



인포플러스의 김종우 대표(왼쪽)와 김민호 대표 /사진=최태범 기자

김종우 대표는 "베트남에도 은행이 있지만 CMS를 만들 기술력이 없었다"며 "인포플러스의 CMS는 은행 업무를 위한 기반 기술을 제공해 준다. 고객사들은 우리의 API 위에 사용자환경(UX·UI)과 비즈니스를 입혀서 영업만 하면 된다"고 했다.

인포플러스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한국계 은행을 베이스로 삼아 고객사를 빠르게 확대해 나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베트남 자산규모 1위 은행인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과 손을 잡으며 현지 CMS 분야에서 사실상 독보적인 사업자의 지위에 올랐다.

김 대표는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이 맨땅에 헤딩하듯 해서 로컬 금융사와 손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우선 한국계 금융기관과 협업하며 좋은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민호 인포플러스 대표는 "솔루션을 사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기술이겠지만 현지에는 이런 기술에 대한 경험 자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https://v.daum.net/v/20240424050015228>

2. Blockchain News

K-핀테크 해외진출 성공하려면..."무조건 현지 OO 있어야 한다"

"사업의 가장 힘든 점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알려줘서 정말 좋은 기술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과정"이라고 했다.

인포플러스는 현지 은행 6곳과 협업하며 누적 기업 고객 6300여개, 제휴사 320여개를 확보했다.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은 100억원대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BIDV와의 협약 이후 로컬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 올해 매출은 200억원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벤처캐피탈(VC) 관계자들은 인포플러스처럼 B2B를 중심으로 하는 스타트업이 베트남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B2C 영역에선 아직 이렇다 할 곳이 나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성공 사례는 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B2C 고객을 모으는 것은 쉽지만 이를 대상으로 돈을 버는 것은 다른 얘기"라며 "고객이 모이는 대중적 서비스라면 비슷한 사업을 베트남의 큰 기업들이 수익성 없이도 한다. 스타트업이 단순히 기술적 우위만으로 시장을 점유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2. Blockchain News

“토큰증권, 객관적 가치 평가로 시장 발전·투자자 보호 모두 잡는다”



토큰증권평가 컨퍼런스에서 발표중인 이태희 나이스피앤아이 정보사업본부장

“새롭게 출범할 토큰증권 시장에서는 가치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핵심이다. 이를 담보하지 못하면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줌으로써 내재가치와 시장가격간의 괴리가 커져 투자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토큰증권 발행, 유통사들과 평가 방법론, 거버넌스, 데이터베이스 등을 공유하고 있다.”

토큰증권 평가협의체를 주관한 나이스피앤아이의 이태희 정보사업본부장(사진)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나이스그룹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1회 토큰증권평가 컨퍼런스에서 가치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토큰증권 평가협의체는 토큰증권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평가사, 발행사, 플랫폼 관계사가 모여 지난해 구성한 협의체다. 나이스피앤아이를 주관사로 제일감정평가, 미래새한감정평가 등 감정평가법인과 법무법인율촌, 나이스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 등 평가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발행사로는 뮤직카우, 편블을 비롯해

2. Blockchain News

“토큰증권, 객관적 가치 평가로 시장 발전·투자자 보호 모두 잡는다”

투게더아트, 스타키퍼, 벵카우, 핀고컴퍼니, 슈박스, 핑거, 웹툰올 등 십여개사가 참가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협의체 참여사들을 대상으로 토큰증권의 가치평가 방법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주제로 개최됐다. 나이스피앤아이에서는 토큰증권 올인원 서비스를, 나이스신용평가에서는 토큰증권 기초자산 평가 방법론을, 나이스평가정보에서는 무형자산 가치평가 방법의 고찰을 각각 소개했다. 법무법인 율촌에서는 토큰증권과 조각투자 관련 주요 법률 이슈를 정리했으며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 부동산 감정평가,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서 미술품 감정평가 방법을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토큰증권 올인원 서비스는 토큰증권 가치평가 뿐 아니라 실제 발행과 판매까지 한번에 수행해주는 모델이다. 토큰증권 발행사는 올인원 서비스를 이용해 토큰증권의 발행, 판매 뿐 아니라 사후 모니터링과 시장 분석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다. 이 본부장은 “크게 6단계로 구분되는 증권발행 단계를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행사와 플랫폼사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데이터베이스 기반 평가 시스템과 서비스 체계를 갖춰 투자자 보호, 시장 건전성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한 증권사 토큰증권 담당자는 “복잡한 평가 이슈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하게 됐다”며 “부동산 및 미술품 평가에 대한 실무 평가방법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가치평가, 시스템을 포괄하는 올인원 서비스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토큰증권 평가협의체는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장 참여자들과의 정보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 하반기 개최될 컨퍼런스에는 가상자산의 가치평가 방법론도 함께 공유될 예정이다.

<https://m.mk.co.kr/news/economy/11001133>

2. Blockchain News

“AI 거품 꺼지고 있어...비용 대비 수익성 등 문제 부각”



엔비디아를 비롯한 인공지능(AI) 관련주 주가 상승세가 최근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AI를 둘러싼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현지시간) 챗GPT 등장 이후 1년 반 동안 이어지고 있는 AI 붐이 둔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으며 투입 비용 대비 수익성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AI가 인류 존재에 위협이 되거나 인간의 모든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자취를 감췄고, AI 기술 이용이 확대되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멀고 장애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I 경쟁에 뛰어든 기업들이 내놓은 제품들도 아직 사람들의 근무나 의사소통 방식을 바꾸지 못했고, AI 모델 개발·운용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익을 내는 기업은 극소수라고 설명했다.

2. Blockchain News

“AI 거품 꺼지고 있어...비용 대비 수익성 등 문제 부각”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한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들은 고급 인력을 고용하고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등 AI 분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지만 수익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MS는 코딩을 도와주는 깃허브 코파일럿 사용자가 130만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금까지 내놓은 AI 모델 가운데 운용비용 대비 수익이 나고 있는 제품이 있는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지난해 애플의 앱스토어와 유사한 GPT 스토어 서비스를 출시하고 이용자가 자신이 만든 GPT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했지만, 역시 수익이 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구글 모회사)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콘퍼런스콜에서 AI에 대한 관심이 클라우드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지만, 루스 포랏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데이터센터·반도체에 대한 투자로 비용이 전년 대비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메타플랫폼(페이스북 모회사)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도 AI 투자에 따른 지출 증가 전망에 따라 이날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으며, 마크 저커버그 CEO는 AI 구축 작업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고객 응대나 문서 요약 등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려 하고 있지만, AI가 실제로 생활에 가시적인 변화를 끌어내려면 적어도 3~5년은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WP는 이뿐만 아니라 정부 규제가 AI 산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내용 오류, 전력 수급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AI 모델의 훈련에 쓰이는 데이터가 부족해지면 성능 개선이 정체될 수 있고, 현재의 AI 도구가 미래 기술에 의해 구식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517157>

2. Blockchain News

호주 증권거래소, 비트코인 현물 ETF 연내 상장 예정



호주의 ASX 증권거래소가 2024년 말까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가 2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ASX가 연내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ASX는 호주 최대 주식 거래소로 현지 거래량의 80%를 차지한다. 3월 기준 ASX의 시가총액은 2조7,000억 달러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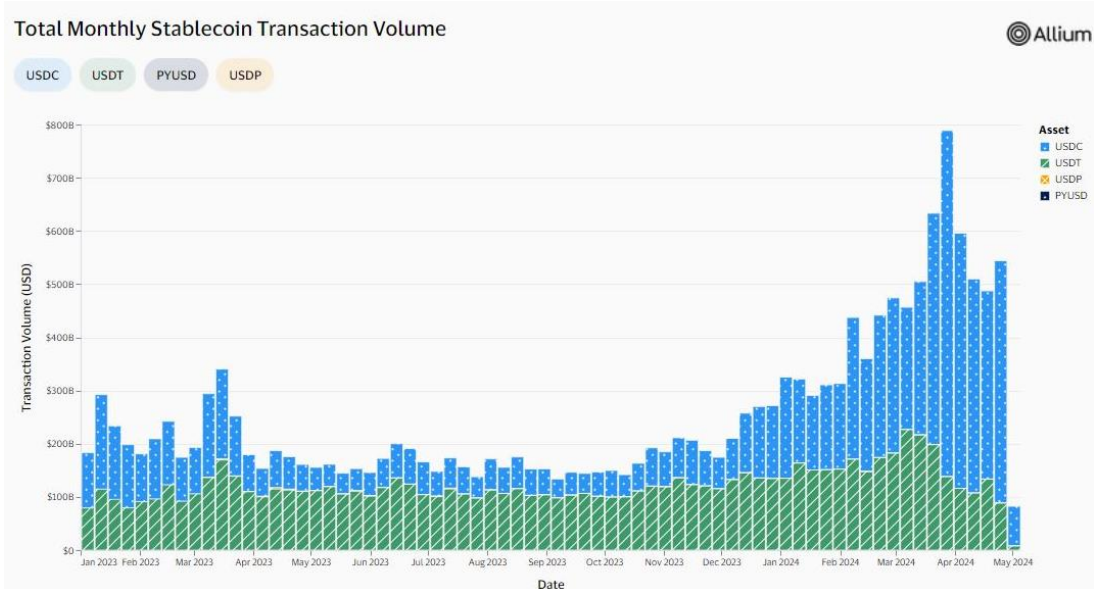
현재 자산운용사 반에크(VanEck)와 현지 기업 베타셰어스(BetaShares), 디지털엑스(DigitalX) 등 여러 기업들은 이미 호주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베타셰어스의 저스틴 아자든 디지털 자산 사업 총괄은 "베타셰어스도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위해 ASX에 티커를 예약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60#google_vignette

2. Blockchain News

비자 "USDC, USDT 제치고 스테이블코인 거래 시장 주도"



사진=알리움 랩스

써클이 발행한 미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코인(USDC)가 테더(USDT)를 제치고 스테이블코인 거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써클은 알리움 랩스와 협력해 제작한 조정 스테이블코인 지표를 근거로 "무기 활동, 기타 인위적 인플레이션 관행 등으로 발생하는 시장 왜곡을 제외한 점유율을 보면 USDC의 올해 거래량은 4560달러로, 테더의 890억달러를 넘어선다"라고 전했다.

노엘 애치슨 크립토이즈나우 저자는 "USDT는 미국 이외 지역에서 달러 기반 가치 저장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반면, USDC는 미국 내 거래 통화로 사용된다. 이번 조사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 Blockchain News

[블록체인 디지털ID 혁신②]블록체인 모바일 신분증 리더 대한민국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일 전국 투표소에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투표를 할 수 있는 모습에 이목이 집중됐다.

대한민국은 전세계적으로 모바일 신분증 선두이자 모범 사례로 꼽힌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국민들은 해당 시스템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 받아 실생활에 이용하고 있다.

2021년 초부터 행정안전부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시작해 정부청사, 중앙부처 소속기관 등에 속한 공무원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청사 출입, 시스템 로그인 등 다양한 신원인증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어서 이듬해인 2022년 초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 국민들은 은행이나 주민센터에서 용무를 볼 때 스마트폰에 발급 해둔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을 하고 금융 거래나 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지난해 6월부터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을 시작하며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12395?sid=101>

2. Blockchain News

[블록체인 디지털ID 혁신②]블록체인 모바일 신분증 리더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용 신분증 15종을 하나로 통합했다. 이에 대상자들은 실물신분증 없이도 기존과 동일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사업에 24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2025년부터 17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발표했다. 나아가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 다양한 모바일신분증으로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발급 시스템은 IT보안·인증 플랫폼 기업인 라온시큐어가 자사 블록체인 기반 신원·자격 인증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했다. 모바일 신분증 신청자의 발급 이력 및 금융 거래나 각종 정부 서비스 이용 시 검증 이력은 블록체인의 분산된 노드에 기록돼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에 가깝고, 장애로 인한 데이터 소실 및 훼손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 개인 정보 보호와 안정성이 우수하다.

한국의 이 같은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리더십은 국제 사회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세계은행은 신원이 검증되지 않아 교육, 의료, 금융 등 기본적인 사회인프라와 복지에서 소외되고 범죄로부터 보호받기 힘든 신분증 사각지대 인구를 위해 디지털 신분증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계은행 관계자들은 지난달 3일 한국을 방문해 라온시큐어 본사에서 조폐공사등 관련 기관 및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형 모바일 신분증 K-DID의 구축 사례 전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폐공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등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한국형 모바일 신분증 K-DID에 대한 많은 관심과 도입을

2. Blockchain News

[블록체인 디지털ID 혁신②]블록체인 모바일 신분증 리더 대한민국

요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라온시큐어는 중앙집중형 신원 인증(CID) 시스템과 한국형 모바일 신분증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신원 인증(DID)의 기술적 차이와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앞서 지난 3월 한국디지털인증협회와도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신분증에 대한 사례연구 분석을 통한 글로벌 확산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모바일 신분증은 전세계적으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국가 디지털 신분증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국제사회 및 다수의 국가들이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디지털 정부 구현에 앞장서온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와 국내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 한국의 블록체인 디지털 ID 기술이 글로벌 표준으로 우뚝 서며 인류 사회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의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은 전세계적으로 국가 디지털 신분증 체계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다수의 나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디지털 신분증 도입이 필요한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정부, 기업들과 긴밀히 논의하며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2. Blockchain News

“유럽과 두바이의 암호화폐 규제...유럽의 MiC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여권이다”



바이낸스 비샬 사찬드란(Vishal Sacheendran) 지역 마켓 총괄 책임자가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미카(MiCA)와 아랍에미리트(UAE) 정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29일 비대면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비샬 사찬드란 바이낸스 책임자는 정부 관계, 규제 관련 라이선스, 지역 확장 등을 총괄하고 있다. 아부다비 국제 시장 금융 서비스 규제 당국에서 7년간 자본시장 관리자, 6년간 뉴욕멜론은행에서 지역 규정 징세 책임자로도 근무했다.

Vishal Sacheendran

Head of Regional Markets at Binance

- ◆ Vishal is currently the Head of Regional Markets at Binance, overseeing MEASAT, Europe, APAC, CEE, and LATAM, while also directing government relations, regulatory licensing initiatives, and regional expansion operations backed by his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regulatory landscape.
- ◆ Prior to joining Binance, Vishal spent seven years at the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uthority of Abu Dhabi Global Market (ADGM) as the Capital Markets Authorisation Senior Manager, a role that entailed authorizing intermediaries and leading the Regulatory Laboratory.
- ◆ Vishal also held a significant position as a regional compliance lead with Bank of New York Mellon for six years and is an alumnus of the University of Houston, Clear-Lake, holding a BSc in Finance.



[바이낸스 비샬 사찬드란(Vishal Sacheendran) 지역 마켓 총괄 책임, 출처: 바이낸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519898>

2. Blockchain News

“유럽과 두바이의 암호화폐 규제...유럽의 MiC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여권이다”

미카는 유럽 가상자산계 ‘여권’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미카는 EU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유럽 내에서도 국가별로 AML(자금세탁방지) 등을 규제하던 것을 통합한 것이다.

EU 전체에 걸쳐 동일한 법률적인 텍스트가 적용된다. 국가별로 편차가 발생할 여지가 줄어들었다.

여권처럼 유럽연합 내 국가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같은 라이선스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미카로 보안이 더욱 강화됐다. CASPs(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Crypto-assets service provider)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백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다.

미카로 조작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 남용과 관련된 규칙들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사업자가 파산했을 때 보관 중인 자산에 대해 미리 조치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사용자 보호 조치가 만들어질 계획이다.

2. Blockchain News

“유럽과 두바이의 암호화폐 규제...유럽의 MiC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여권이다”

Registrations to Regulation

- ◆ Current State: Fragmentation along national lines in EU
 - CASPs (Crypto Asset Service Providers) need to be registered for AML purposes separately in each Member State to operate.
- ◆ Post MiCA
 - One regulation to rule them all
 - Legislative text applies in the same way across the EU
 - Limited room for national divergence
 - Once licensed in one Member State, a CASP can operate across the bloc- i.e. passporting

BINANCE ACADEMY

EUROPEAN UNION
Current member
Official candidate
Recognized as a potential candidate
Former members
31st March 2024

[MiCA 관련 강의 자료, 출처: 바이낸스]

구체적인 암호화폐 규제 기관이 있는 'UAE'

아랍에미리트(UAE)는 더욱 세분화된 규제를 가지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 기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로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이 있다.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은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은행 시스템 안에서 암호화폐를 관리한다. 예를 들어 법정 화폐로서 온·오프 램프나 환전 등을 통해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증권상품감독청인 SCA(Securities and Commodities Authority)의 경우, 통상적인 증권을 규제한다. 2020년 암호화폐 규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3월 별도의 VARA(Virtual Assets Regulatory Authority)라고 하는 가상자산 규제청에서 가상자산 관련 감독을 진행한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519898>

2. Blockchain News

“유럽과 두바이의 암호화폐 규제...유럽의 MiC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여권이다”

아랍에미리트 특별무역지구 구역(프리존)의 경우, 외국인들이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다. 프리존에서는 소득세가 없다. 법인세의 경우 약 9%가 적용된다.

특별무역지구는 크게 두 개가 있다. 두바이는 DFSA(Dubai Financial Service Authority), 아부다비는 ADGM(아부다비 글로벌 마켓, Abu Dhabi Global Market)이 있다.

DFSA는 2022년 11월 처음 규제와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 이 규정은 암호화폐 토큰 시장의 토큰 시장에 대한 운영 수탁 서비스 제공 그리고 고객 자산 관리 펀드 설립과 관리 기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을 수용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DFSA는 현재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만 취급 중이다.

아부다비는 2018년 가상자산 관련 포괄적 규정을 발표했다. ADGM의 FSRA 제도에 따라 거래소는 시장 감시 결제 거래 모니터링 기록 및 투명성 기타 시스템 통제와 관련된 요건들을 충족하도록 요구됐다.

두바이에는 DMCC(두바이복합상품센터, Dubai Multi Commodities Centre)는 금융 관련 프리존이 아니며,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들을 많이 유치했다. 암호화폐뿐 아니라 금 관련 프로젝트도 다수 유치되어 있다.

DMCC도 2022년 3월부터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2. Blockchain News

홍콩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ETF 거래 개시...
"첫날 반응 기대 이상" vs "기관수요 기대 말아야"



▲ 비트코인 ©코인리더스

홍콩에서 30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시작됐다.

현재 홍콩 전문투자자, 개인투자자만 투자 가능하다. 중국 본토 투자자는 아직 투자 불가하다.

홍콩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거래가 개시된 6종 BTC, ETH 현물 ETF 거래량이 8,758만 홍콩달러(약 155억 원)를 기록했다.

ST헤드라인에 따르면, 홍콩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 발행사 하베스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최고경영자(CEO) 한통리(Han Tongli)가 "홍콩증권거래소에서 암호화폐 현물 ETF를 출시한 첫 날인 오늘 시장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웨일와이어(WhaleWire)가 공식 X(구 트위터)를 통해 "예상대로 홍콩 ETF 출시로 인한 기관 수요 증가는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몇 달간 비트코인의 상승밸리는 테더가 시장에 엄청난 양의 USDT를 투입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시간 이날 오후 8시 18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36% 내린 6만1천519달러, 이더리움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4.61% 떨어진 3천030달러에 거래중이다.

<https://m.coinreaders.com/108394>

2. Blockchain News

물가 뛰고 인건비 날고... 美 뛴친 '금리인하 불발 공포'



미국 보스턴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이 과일과 야채를 다듬고 있다. 이런 일자리 가운데 상당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블룸버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금리 인하로 향하는 '라스트 마일(마지막 관문)'에서 요동치고 있다. 지난달 26일 나온 올 1분기(1~3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이 시장 전망을 웃돈 데 이어 이번엔 1분기 인건비 지표마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건비가 오르면 외식, 여행 등 서비스 물가를 자극해 광범위한 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고 '끈적(sticky)'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쉽게 단행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 위축을 불러오고 경기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닥칠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2. Blockchain News

물가 뛰고 인건비 날고... 美 댄친 '금리인하 불발 공포'



그래픽=백형선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5/01/EEVLALQJEFA6FP7MPNXJF323DA/

2. Blockchain News

물가 뛰고 인건비 날고... 美 댄친 '금리인하 불발 공포'

◇뜨거운 노동 시장에 끈적한 물가까지

미국의 임금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미 노동부는 1분기 고용비용지수(ECI)가 전 분기 대비 1.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 1%를 웃돈 것으로, 직전 분기(0.9%)에 비해 오름폭도 커졌다. 고용비용지수는 임금에 복리후생비까지 더해 지수화한 것으로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중시하는 인건비 척도다.

투자자문사 에버코어ISI의 크리스나 구하 부회장은 "실망스러운 ECI 지표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확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전가할 경우 물가가 더 자극받는 '임금-물가 스파이럴(소용돌이)' 악순환도 우려된다.

이미 '고물가 고착화' 우려는 강해지고 있다. 최근 나온 물가 지표들은 줄줄이 예상을 뛰어넘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1분기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전년 대비 3.4% 상승해 전 분기의 상승폭 1.8%를 크게 웃돌았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도 3.7% 상승해 시장 전망치(3.4%)를 상회했다. 근원 PCE는 연준이 물가 추이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같은 날 나온 1분기 미국 성장률이 연율 1.6%로 작년 4분기(3.4%)와 시장 전망(2.4%)을 크게 밑돌면서 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타났다.

◇저소득층 소비 위축...美 식음료 기업 "우려" 목소리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로 미국의 소비심리도 꺾여 얼어붙고 있다. 지난달 30일 콘퍼런스보드에 따르면 4월 소비자신뢰지수는 97로 전달(103.1)보다 하락했다.

2. Blockchain News

물가 뛰고 인건비 날고... 美 댄친 '금리인하 불발 공포'

3개월 연속 하락해 2022년 7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밑돌수록 소비자들이 경기를 비관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건 저소득층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저소득층 고객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맥도널드, 코카콜라, 펩시 등 미국의 대형 식음료 기업 매출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언 보든 맥도널드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달 30일 콘퍼런스콜에서 "저소득층 고객들이 패스트푸드 소비를 줄이는 대신 집밥을 해먹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보급형 세트 메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존 머피 코카콜라 CFO도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더 크고 저렴한 제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네슬레의 1분기 미국 매출은 저소득층의 냉동제품 구입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하기도 했다.

◇급격히 식은 연내 금리 인하 기대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면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진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현재의 고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이다.

월가에선 연초에 연준이 올해 4~5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란 전망이 다수였지만, 물가 불안이 커지자 6월부터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시나리오가 강해졌다. 하지만 이제는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란 전망은 물 건너갔고, 9월 금리 인하 개시도 쉽지 않은 모양새다. 지난달 말 BNP파리바는 연준의 첫 금리 인하가 오는 12월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 시점을 늦췄고, 연말 1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맥쿼리는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시장금리로 연준의 금리를 추정하는 시카고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 툴에선 심지어 그간 '제로(0)'였던 금리 인상 확률이 1%대로 올라섰다. 6월 금리 인상 확률은 1%, 7월 0.9%, 9월 0.6% 등을 나타내고 있다. 비록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얼마나 후퇴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5/01/EEVLALQJEFA6FP7MPNXJF323DA/

2. Blockchain News

항공기도 '조각투자'...갤럭시아머니트리, 혁신금융 지정

30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2건 의결



에어프레미아 B787-9 드림라이너 항공기.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에어프레미아)

항공기를 기초자산으로 한 토큰증권(STO) 서비스를 하는 갤럭시아머니트리가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 중이던 항공기 펀드에 개인의 투자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건을 의결했다.

갤럭시아머니트리와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블록체인 기반의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 거래 유통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갤럭시아머니트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항공기 엔진을 매입한 후 엔진 실물을 유진투자증권에 신탁하면, 이 신탁 계약을 체결 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투자자는 신탁수익증권의 소유자이자 수익자가 된다. 투자금에 비례해 엔진대여 사업운영에 따른 수익권을 취득해 이를 신한투자증권(유통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다.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18459>

2. Blockchain News

항공기도 '조각투자'...갤럭시아머니트리, 혁신금융 지정

해당 서비스는 내년 2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또다른 건은 씨비파이낸셜솔루션이다. 씨비파이낸셜솔루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다. 금융위는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및 1사 전속의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특례를 부여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의 예·적금 상품을 추천받아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회사 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 Blockchain News

Early Bitcoin Investor Charged with Tax Fraud

Man Known as “Bitcoin Jesus” Evaded Nearly \$50M in Taxes

An indictment was unsealed yesterday charging Roger Ver, an early investor in bitcoins, with mail fraud, tax evasion and filing false tax returns. Ver was arrested this weekend in Spain based on the U.S. criminal charges. The United States will seek Ver’s extradition to stand trial in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the indictment, Ver formerly of Santa Clara, California, owned MemoryDealers.com Inc. and Agilestar.com Inc., two companies that sold computer and networking equipment. Starting in 2011, Ver allegedly began acquiring bitcoins for himself and his companies. He also allegedly avidly promoted bitcoins, even obtaining the moniker “Bitcoin Jesus.”

On Feb. 4, 2014, Ver allegedly obtained citizenship in St. Kitts and Nevis and shortly thereafter renounced his U.S. citizenship in a process known as expatriation. As a result of his expatriation, Ver allegedly was required under U.S. law to file tax returns that reported capital gains from the constructive sale of his world-wide assets, including the bitcoins, and to report the fair market value of his assets. He was also allegedly required to pay a tax – referred to as an “exit tax” – on those capital gains. By Feb. 4, 2014, Ver and his companies allegedly owned approximately 131,000 bitcoins that traded on several large exchanges for around \$871 each. MemoryDealers and Agilestar allegedly held approximately 73,000 of those bitcoins.

Ver allegedly hired a law firm to assist him with his expatriation and to prepare his expatriation-related tax returns. Ver also allegedly hired an appraiser to

<https://www.justice.gov/opa/pr/early-bitcoin-investor-charged-tax-fraud>

2. Blockchain News

Early Bitcoin Investor Charged with Tax Fraud

value his two companies. Ver allegedly provided or caused to be provided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to the law firm and appraiser that concealed the true number of bitcoins he and his companies owned. As a result, the law firm allegedly prepared and filed false tax returns that substantially undervalued the two companies and their 73,000 bitcoins and did not report that Ver owned any bitcoins personally.

The indictment further alleges that by June 2017, Ver's two companies continued to own approximately 70,000 bitcoins. Around that time, Ver allegedly took possession of those bitcoins and in November 2017 sold tens of thousands of them on cryptocurrency exchanges for approximately \$240 million in cash. Even though Ver was not then a U.S. citizen, he was still legally required to report to the IRS and pay tax on certain distributions such as dividends from MemoryDealers and Agilestar, which were U.S. corporations. Ver allegedly concealed from his accountant that he had received and sold MemoryDealers' and Agilestar's bitcoins that year. As a result, Ver's 2017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did not report any gain or pay any tax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MemoryDealers' and Agilestar's bitcoins to him.

In total, Ver is alleged to have caused a loss to the IRS of at least \$48 million.

Acting 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 Stuart M. Goldberg of the Justice Department's Tax Division and U.S. Attorney Martin Estrada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made the announcement.

<https://www.justice.gov/opa/pr/early-bitcoin-investor-charged-tax-fraud>

2. Blockchain News

Early Bitcoin Investor Charged with Tax Fraud

IRS Criminal Investigation's cybercrimes unit is investigating the case.

Assistant Chief Matthew J. Kluge and Trial Attorney Peter J. Anthony of the Justice Department's Tax Division and Assistant U.S. Attorney James. C. Hughes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are prosecuting the case.

An indictment is merely an allegation. All defendants ar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beyond a reasonable doubt in a court of law.

2. Blockchain News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6일 연속 자금 유출... 블랙록도 첫 순유출 발생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최근 6일 연속 자금 유출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 시각) 크립토포테이토는 지난 1일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하루 동안 총 5억6370만 달러의 자금이 유출되어 일일 최대 규모 자금 유출을 경험했다고 보도했다.

파사이드 인베스터스(Farside Investors) 데이터에 따르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B는 이날 3690만 달러의 자금이 유출되며 처음으로 유출 사례를 겪었다. 나머지 9개 ETF는 같은 날 5억2680만 달러의 유출을 기록했다.

가장 큰 유출은 피델리티의 와이즈 오리진 비트코인 펀드(FBTC)에서 발생했다. FBTC는 이날 1억9100만 달러 규모의 순유출을 보였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는 1억 640만 달러의 유출을 기록했다.

<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207>

2. Blockchain News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6일 연속 자금 유출... 블랙록도 첫 순유출 발생

아크21세어스와 프랭클린 템플턴은 각각 9810만 달러, 1340만 달러의 유출을 보였다.

한편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7개월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고 전반에 걸쳐 조정을 겪고 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 4월 한 달간 16% 이상 폭락했으며 이더리움은 18%의 가치가 하락했다. 솔라나, 도지코인, 아발란체 등의 알트코인은 4월 동안 35~40% 가량 큰 폭으로 하락했다.

3. Blockchain Financial

[데이터뉴스] 비트코인 ATM 10달새 5000대 증가

비트코인 ATM 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동안 급격한 내리막세를 이어왔으나, 반감기 등 암호화폐 스프링 훈풍이 불어옴에 따라 비트코인 ATM도 다시 설치되고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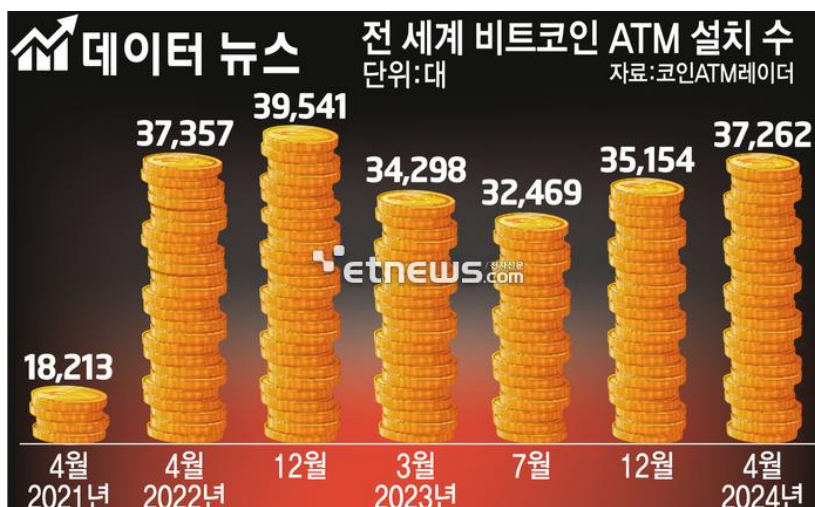
코인ATM레이더에 따르면 전세계 비트코인 ATM 설치 수는 4월 기준 3만7000대를 웃돈다. 10달새 5000여대가 증가한 결과다.

비트코인 ATM 수는 2022년말까지 약 1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당시 3만9500여대의 비트코인ATM이 전세계에 설치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급격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1월 3만8000여대에서 7월 3만2000여대로 5000대 비트코인 ATM이 철수됐다.

이후 반감기를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면서 다시 설치 건수가 늘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대비 현재 비트코인ATM 설치 수는 약 16% 증가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3만1443개, 캐나다 2997개, 호주 1016개, 스페인 310개, 폴란드 285개, 엘살바도르 215개, 독일 193개, 홍콩 170개 설치돼있다. 이외 대만에는 20개, 일본에는 3개의 비트코인ATM이 있다.



전 세계 비트코인 ATM 설치 수

<https://m.etnews.com/20240501000075?obj=Tzo4OjZdGRDbGFzcyl6MjM7czo3OjYjZWZlcmVyljtO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HRvIG1vYmlsZSI7fQ%3D%3D>

3. Blockchain Financial

[데이터뉴스] 비트코인 ATM 10달새 5000대 증가

2018년 4월	2019년 4월	2020년 4월	2021년 4월	2022년 4월	2022년 12월	2023년 3월	2023년 7월	2023년 12월	2024년 4월
2724	4485	7518	18213	37357	39541	34298	32469	35154	37262

전세계 비트코인ATM 설치수 - 자료=코인ATM레이더

3. Blockchain Financial

네카오 블록체인 사업을 왜 'UAE'서 해야 할까?... "국내 귀환 유도해야"

| 꺾 막힌 가상자산발행...'일률적 금지→선택적 허용' 전환 필요
| 가상자산 제도는 '전인미답'..."우선 출발하고 후속 보완해야"



한국도 가상자산발행(ICO)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국내 귀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금융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또 처음부터 완벽한 가상자산 시스템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우선 출발한 후 '제도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제도권의 가상자산의 발행(ICO)이 국내에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해외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국내 귀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7년 12월 정부 방침으로 ICO가 금지됨에 따라 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가상자산은 해외에서 발행되고 있다. 최근 네이버 계열 플랫폼인 핀시아와 카카오 계열 플랫폼인 클레이튼이 합병을 통해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들은 새로운 사업지로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를 선정했다.

https://m.news1.kr/articles/?5401956#_enliple

3. Blockchain Financial

네카오 블록체인 사업을 왜 'UAE'서 해야 할까?... "국내 귀환 유도해야"

◇ 짝 막힌 가상자산발행...'일률적 금지'→'선택적 허용' 전환 필요

이 선임연구위원은 ICO에 대해 '일률적 금지' 방식보다는 '선택적 허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이 블록체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 금지 방식을 고집하다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가상자산 상장 시 자율규제기관(JVCEA)의 심사 절차와 금융청(FSA)의 검토를 운용하고 있고, 홍콩은 증권선물감독위원회(SFC)의 사전심사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가상자산을 기존의 금융서비스(FSMA)의 규제 범위에 포함해 금융감독청(FCA)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들의 매매, 중개, 투자자문, 자산운용 등을 허용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다양한 나라들의 제도와 집행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디지털자산의 특성, 위험 수준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상자산 제도는 '전인미답'..."우선 출발하고 후속 보완해야"

이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제도 마련에 대해 "아무도 가본 적 없는 '전인미답'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우선 출발 후 '제도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해 '시장감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고도의 전산 설비 구축을 서두르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선은 법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설비로 출발한 후 사업자 및 이용자들의 참여를 통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3. Blockchain Financial

블랙록, “국부펀드 및 연기금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 참여 전망”

향후 수개월 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으로 국부펀드와 연기금 등의 기관이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으로부터 제기됐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발행사이기도 한 블랙록은 최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관련 교육 성격의 대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사 - 코인데스크 갈무리

블랙록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2일 업계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Coindesk)와의 인터뷰에서 국부펀드와 연기금 등의 다수의 기관투자자가 수개월 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매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블랙록의 디지털자산 책임자는 최근 지난달 71일 연속 유입이 이어지던 자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상품에 소강상태를 겪고 있다면서도, 다른 유형의 투자자들로부터 새로운 물결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로버트 미치닉(Robert Mitchnick) 블랙록 디지털자산 책임자가 언급한 다른 유형의 투자자들로는 국부펀드, 보험사, 자산운용사, 패밀리오피스(개인자산관리 자문회사) 등이 있었다. 그는 현재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에 관심 있는 회사들과 교육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대화와 실사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3. Blockchain Financial

블랙록, “국부펀드 및 연기금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 참여 전망”

- Financial institutions are holding diligence and research conversations, with BlackRock playing an educational role, said Robert Mitchnick, the firm's head of digital assets.
- BlackRock has been talking about bitcoin to these sorts of institutions for several years.
- While becoming the biggest spot bitcoin ETF would be an impressive milestone, BlackRock says it isn't really focused on the size competition with Grayscale's GBTC.

블랙록은 국부펀드와 연기금 등의 다수의 기관투자자가 수개월 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매수할 것으로 내다봤다(사진=코인데스크)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시장 참여에 있어 고려하는 사항은 '세금'으로 전해졌다.

로버트 미치닉 책임자는 기관투자자 일부가 비트코인 등 현물 가상화폐를 보유했을 때의 세금 신고 및 계산 방법을 우려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사의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비트코인 현물 가상화폐 보유 시 세금 정산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대안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블랙록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세 가지 구성요소는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 토큰화(Tokenization)으로 드러났다. 세 요소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이 잠재력을 갖는다는 것이 블랙록의 관점이다.



비트코인

3. Blockchain Financial

블랙록, “국부펀드 및 연기금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 참여 전망”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 또는 금(金)과 같은 특정자산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로, 거래소에서는 자산 매입에 쓰이며 송금 및 결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산 토큰화’로도 알려진 토큰화는 물리적 또는 디지털자산의 소유권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표기하는 것을 뜻한다. 업계에 따르면 ‘자산 토큰화’는 대체가능토큰(FT)과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나뉘며, 가상화폐 시장 외에도 부동산, 미술품, 금융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

블랙록은 지난 3월 현금,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해 토큰 보유자에게 수익률을 보장하는 펀드인 ‘비들(BUIDL)’을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 출시한 바 있다.

BlackRock, the world's largest asset manager, has partnered with cryptocurrency exchange Coinbase to launch the BlackRock USD Institutional Digital Liquidity Fund (BUIDL), a blockchain-based investment fund designed to offer U.S. dollar yields through tokenization.

블랙록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3월 20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최초의 ‘자산 토큰화’ 펀드인 ‘비들(BUIDL)’을 출시했다(사진=야후파이낸스)

한편 비트코인은 5월 3일 오전 현재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12% 상승한 8,359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3. Blockchain Financial

“아직 한 발 남았다”... ‘롤러코스터’ 타는 비트코인, 남은 호재는

베스트셀러 작가 기요사키 “비트코인 32억원 갈 것”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 환경 및 금리 인하 등 주목



사진은 서울 빗썸 고객센터에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 [사진 연합뉴스]

비트코인이 최근 하락세로 돌아서며 9000만원선이 붕괴됐다. 그간 '호재' 중 하나로 여겨졌던 반감기가 끝나면 어떤 호재가 남아있을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기준 29일 오후 6시 현재 8870만원에 거래돼 9000만원까지 붕괴된 상태다. 비트코인은 이달 들어 중동발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자산 회피 심리와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로 지속해 하락세를 보여왔다.

지난 20일 역사상 네 번째로 맞이한 반감기를 전후로 9000만원대 초반에서 9759만원 까지 오르는가 했던 비트코인은 24일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며 9000만원 초반대를 횡보했다.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404300058>

3. Blockchain Financial

“아직 한 발 남았다”... ‘롤러코스터’ 타는 비트코인, 남은 호재는

하지만 시장에선 아직 호재가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5월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미국 FOMC 정례회의 후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 유력시되고는 있지만 이후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내놓을지, 비둘기파적 발언을 내놓을지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하고 있는지 확신이 필요하다"며 금리 인하 지연을 시사했지만, 올해 하반기 중에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까지는 지배적이다.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트코인 가격이 230만 달러(약 31억7745만원)까지 오를 것'이라 주장한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의 말에 공감을 표해 주목받고 있다. 다만 비트코인은 최근 가격이 하락해 9000만원이 붕괴했다. [사진 SNS 캡처]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 신흥국 통화 이슈보다 미국 달러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연준의 금리 정책은 비트코인 가격 향방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지난 3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8%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404300058>

3. Blockchain Financial

“아직 한 발 남았다”... ‘롤러코스터’ 타는 비트코인, 남은 호재는

상승하며 월가의 예상치를 웃돌았다. 지난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 4.7%를 상회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6월 미국 연준의 금리동결 확률은 88.4%, 25bp 금리 인하 확률은 11.3%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이 최근 경제 수치를 바탕으로 이전보다 얼마나 더 매파적으로 얘기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 환경이 확립 가능성도 남아있다. 먼저 올해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 간 소송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 유럽의 가상자산 법 미카(MICA)도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미카가 시행된다면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 제도화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코인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최근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의 비트코인 강세론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기요사키는 캐시 우드가 제시한 비트코인 230만 달러(약 31억 8458만원) 시나리오를 두고 “나도 비트코인이 그 가격에 도달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캐시 우드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틀릴 가능성도 있지만 캐시 우드의 말이 맞다면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캐시 우드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2030년 안에 23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앞서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마셜 비어도 최근 CNBC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다 올해 후반에 15만 달러(2억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반감기라는 호재가 이미 반영됐고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4만 달러(5000만원)대까지 하락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3. Blockchain Financial

Apple poaches Google AI staff, creates 'secretive' laboratory: Report

Apple has reportedly been luring experts from Google in its efforts to catch up with Big Tech companies in the race to develop and deploy high-level AI models.



Apple has reportedly been snatching up experts from Google in an effort to build out its own team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machine learning experts.

According to a report from the Financial Times (FT) on April 30, Apple has been luring "dozens" of these experts in a "hiring spree" over the past year, specifically from Google. The report said that Apple has attracted approximately 36 AI specialists from Google since 2018.

In addition to trying to form top teams of AI experts, Apple has also acquired two local AI startups in Zurich, Switzerland, which led it to build a "secretive" laboratory in the area which it calls "Vision Lab."

<https://cointelegraph.com/news/apple-poaches-google-ai-secretive-laboratory>

3. Blockchain Financial

Apple poaches Google AI staff, creates 'secretive' laboratory: Report

The FT report says that its Zurich employees have been key in Apple's research of high-level AI technologies that power rival services like OpenAI's ChatGPT. However, residents have said that the laboratory is inconspicuous, and some didn't even realize Apple was active in the area.

This comes as Apple begins to be more aggressive in its approach to its AI development. Apple has been relatively silent over the last year as its Big Tech competitors such as Google, Meta, Microsoft, Amazon and OpenAI have all been racing to invest in and build powerful large language models.

Related: Apple Pay is the benchmark as crypto mobile payments push for adoption

Apple has seen its share slip since the start of 2024. In contrast, the second quarter earnings reports from Microsoft and Google revealed significant revenue and profit increases driven by their investments and advancements in AI technologies.

However, on April 24, Apple released its own Open-source Efficient Language Models (OpenELM), a series of four tiny language models on the Hugging Face library. The models are intended for text-related tasks such as email writing.

According to industry insiders, Apple will focus on incorporating generative AI into its mobile devices. This means it would make it so that AI chatbots and apps could run via the built-in hardware of the iPhone rather than being powered by data centers and their respective cloud services.

Back in February 2024, Tim Cook, the CEO of Apple, confirmed that generative AI

<https://cointelegraph.com/news/apple-poaches-google-ai-secretive-laboratory>

3. Blockchain Financial

Apple poaches Google AI staff, creates 'secretive' laboratory: Report

software features will come to iOS and other Apple platforms later in the year.

On April 27, it was reported that Apple and OpenAI are involved in deep discussions over the integration of generative AI technologies on iOS.Apple. There were also mentions of similar conversations with Google.

While nothing has been set in stone, these developments point towards Apple's pivot towards AI.

3. Blockchain Financial

미국 법무부 "비트코인은 돈"으로 규정-린 알덴 "슈뢰딩거의 돈이냐" 비판



미국 법무부가 "비트코인을 돈으로 규정했다"고 유명 경제블로거 린 알덴이 28일(현지 시간) 엑스에 올렸다.

린 알덴은 암호화폐 믹서(mixer)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재판에서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공유했다. 법무부는 토네이도 캐시의 개발자인 로만 스톰 등이 자금세탁 공모, 무허가 송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비트코인은 돈"으로 규정했다.

비트코인이 돈으로 규정돼야만 자금세탁 무허가 송금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Blockchain Financial

미국 법무부 "비트코인은 돈"으로 규정-린 알덴 "슈뢰딩거의 돈이냐" 비판



Lyn Alden 
@LynAldenContact · 팔로우하기



US prosecutors say bitcoin is money.

It's Schrodinger's money. It's a "speculative asset" when they want to describe it as not important, but then becomes "money" for the purposes of laws regarding money transmission, and then back to "speculative asset" again.

06 (S.D.N.Y. 2016). Courts have uniformly held, and the defendant
 motion, that “funds” and “money” for purposes of this statute include
Murgio, 209 F. Supp. 3d at 705-10 (Bitcoin exchange covered by 18 U.S.C.
Faiella, 39 F. Supp. 3d 544, 545 (S.D.N.Y. 2014) (“Bitcoin clearing
 funds” for purposes of 1960 prosecution); *United States v. Harmon*, 4
 2020) (applying Section 1960 to Bitcoin mixing service).



John Paul Koning @jp_koning

The SBF case got all the attention but the Tornado Cash case may end up being the seminal crypto court case. Which is why you should rea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defence's motion to dismiss, published last night.

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UNITED STATES OF AMERICA

-v-

ROMAN STORM

Defendant.

23 Cr. 430 (KPF)

**THE GOVERNMENT'S OPPOSITION TO DEFENDANT
ROMAN STORM'S PRETRIAL MOTIONS**

DAMIAN WILLIAMS
United States Attorney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3. Blockchain Financial

미국 법무부 "비트코인은 돈"으로 규정-린 알덴 "슈뢰딩거의 돈이냐" 비판

린 알덴은 미국 검찰에게 비트코인은 "슈뢰딩거의 돈이다"고 비판했다. 비트코인을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싶을 때는 "투기 자산"이고 송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싶으면 "돈"으로 규정하고 다시 "투기 자산"으로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슈뢰딩거의 고양이"를 비유한 것이다.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양자물리학에서 상자 속에서 독에 노출될 수 있는 고양이가 살아 있으면서 동시에 죽어 있는 것이며,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에야 생사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사고 실험이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암호화폐 믹서기인 사무라이 월렛의 공동 설립자를 자금 세탁 공모 등의 혐의로 체포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 같은 법무부의 태도에 대해 "칼을 만든 사람을 살인자로 체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비판하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3. Blockchain Financial

러시아 '암호화폐 금지령' 9월 조기 시행된다... "유통·조직 금지"



러시아가 오는 9월부터 '암호화폐 금지령'을 조기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현지 시각)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금융시장 국가두마위원회 위원장 아나톨리 아크사코프(Anatoly Aksakov)는 현지 매체 NSN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몇 주 안에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 유통 조직 금지'에 대해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크사코프에 따르면 법안에서 채굴자들과 채굴풀, 그리고 러시아 관할 구역에서 발행된 디지털 금융 자산은 금지 목록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러시아 은행이 발행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암호화폐와 중앙은행의 CBD 프로젝트인 디지털 루블이 포함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인 국가두마에서 주요 반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중앙은행과 정부 부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3. Blockchain Financial

러시아 '암호화폐 금지령' 9월 조기 시행된다... "유통·조직 금지"

이번 새로운 법안은 은행들과 주요 부처의 각기 다른 주장에 대한 타협안으로 보인다. 은행은 이전에 중국 스타일의 '완전한' 암호화폐 금지를 요구했지만, 주요 부처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 부처들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현지 거래소가 엄격히 규제되는 미국과 한국 및 일본 스타일의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중앙은행은 미국 및 EU 주도하는 제재로 인해 해외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어느 정도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3. Blockchain Financial

암호화폐 거물들 "SEC와 싸우는 컨센시스 지지"



암호화폐 업계의 거물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컨센시스(Consensus)를 지지하고 나섰다.

26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Coinbase), 유니스왑(Uniswap)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 경영진들이 컨센시스의 SEC에 대한 공격에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기업 컨센시스는 SEC가 규제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컨센시스가 수년간 인큐베이팅하고 지원해온 주요 암호화폐 및 웹3 지갑인 메타마스크(MetaMask)에 대한 SEC의 소송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이더리움(ETH)이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얻어내려는 목적도 있다.

이번 소송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유니스왑 랩스와 같은 주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비영리 단체인 이더리움 재단과의 상호 작용에 관련된 문서를 요구하는 소환장도 포함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암호화폐 업계의 많은

3. Blockchain Financial

암호화폐 거물들 "SEC와 싸우는 컨센시스 지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유니스왑의 설립자이자 CEO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컨센시스 설립자와 나머지 팀원들이] 우리 업계를 지키기 위해 싸워줘서 고맙다"면서 "우리는 지나친 공격과 괴롭힘에 지쳤다"고 밝혔다.

현재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와 관련하여 SEC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로왈은 "이제 SEC도 이더리움이 상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SEC의 불법적인 권한 확장에 맞서 싸워준 컨센시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3. Blockchain Financial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채굴자 수익 75%→35% 급감



비트코인 채굴자 수익 중 거래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반감기 이벤트 당일 급증한 이후 크게 감소했다.

28일(현지 시각) 크립토포테이토는 크립토퀀트 보고서를 인용하여 비트코인 채굴 거래 수수료가 반감기 당일 8000만 달러에서 지난 26일 기준 600만 달러로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크립토퀀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거래 수수료는 총 채굴자 수익의 35%를 차지하는데, 이는 반감기가 실행된 지난 19일에 기록된 75%에서 크게 하락한 수치이다. 네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는 채굴자 블록 보상을 반으로 줄여 일일 평균 발행량이 900 BTC에서 450 BTC로 감소했다.

반감기 당일, 일일 채굴자 수익은 거래 수수료에서 나타난 눈에 띄는 급증으로

3. Blockchain Financial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채굴자 수익 75%→35% 급감

인해 1억 달러로 치솟았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일일 수수료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인 1258 BTC(8000만 달러)로 치솟아 해당일 총 수익의 75%를 차지했다.

높은 거래 수수료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비트코인 반감기 블록에서 출시된 후 네트워크 활동을 주도한 룬(Runes) 프로토콜이었다. 룬은 'OP RETURN' 코드에 데이터를 저장하여 대체 가능한 토큰의 발행 및 전송을 허용한다. 반감기 당일에 사용자가 룬 프로토콜로 몰려들면서 코드 사용은 51만2000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3. Blockchain Financial

"법인 투자·비트코인 ETF 허용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 경쟁력 키워야"

30일 김앤장, '디지털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이종섭 교수 '글로벌 가상자산사업 현황과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종섭 서울대 교수가 30일 김앤장, '디지털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글로벌 가상자산사업 현황과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사진:박건도 기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법인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글로벌 가상자산사업 현황과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이란 발제에서 "국내 거래소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실물자산(RWA) 토큰화를 세계적 추세로 보고, 국내 시장이 이에 대비해 기술 인프라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991#_DYAD

3. Blockchain Financial

"법인 투자·비트코인 ETF 허용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 경쟁력 키워야"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시작으로 전통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며 "글로벌 디지털 금융전환이 가져올 격변기에 대비해 개발자, 금융업 종사자, 당국이 협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개인 투자자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면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으로부터 고립·도태될 수 있다"며 "기관 투자 인프라 육성을 위해 선별적으로라도 법인 투자를 허용하고 추가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미국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데 이어 홍콩 역시 제도권 자금도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현물 ETF를 최근 승인했다. 4월 30일부터는 홍콩 HKEX에 상장해 거래를 게시할 예정이다.

전통금융의 토큰화 역시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지난 3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한 토큰화 펀드인 '비들(BUIDL)'을 내놓았다. 펀드를 토큰화해 투자와 환매를 간편하게 한 증권형토큰발행(STO)과 RWA 토큰화의 실사례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개인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투자 심리에 민감한 개인 투자자만으로 형성된 수요와 공급은 빈번하게 가격 버블을 형성하고 붕괴되는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는게 이 교수 지적이다.

이종섭 교수는 법인 등 기관 투자자가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경우 변동성 비용이 감소해 가격 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진단했다. 다수 기관투자자를 통해 경쟁적 시장이 조성되면 유동성이 증대되고 이는 개인 투자자 수익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3. Blockchain Financial

"법인 투자·비트코인 ETF 허용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 경쟁력 키워야"

이에 대한 근거로 이 교수는 올해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약 80일간 진행된 '법인 참여로 인한 거래 비용 절감 효과 시뮬레이션'을 공개했다.

국내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yg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슬리피지가 경감될 경우 연간 64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 거래비용이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슬리피지란 주문을 체결하는 동안 시장 변동으로 인해 손실 또는 이득을 본 금액을 뜻한다.

법인이 시장에 참여할 경우 일부 기관에 의해 유동성 독과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총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에서는 시세조작을 통한 불공정 거래 수익을 얻기 어렵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다만, 그는 법인 투자를 허용하기 앞서 강력한 규제와 운영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김 의원은 글로벌 트렌드를 가상자산 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 Blockchain Financial

'상폐'에 해외 전전하던 페이코인 투자자, 韓 시장으로 집결

페이코인 상장한 코인원과 코빗서 시장 전체 거래량의 99% 발생
300만 투자자 보유한 페이코인..."국내 사업 재개가 최종 목적"



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달콤커피 분당서현점을 찾은 한 고객이 페이코인 앱을 이용해 주문하고 있다. 다날핀테크는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이더리움, 아이콘 등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과의 서비스 연동도 준비하고 있다. 2021.6.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다날(064260) 표 가상자산(암호화폐) 페이코인의 99%가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만 결제 사업을 이어가는 페이코인이지만 최근 코빗과 코인원에서 거래가 재개되면서 국내 점유율을 빠르게 회복 중이다.

1일 글로벌 코인 시장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전일 시장에 유통된 페이코인 중 99.3%가 원화(KRW)를 지원하는 국내 거래소 코인원과 코빗에서 거래됐다.

페이코인은 지난해 4월 국내 결제 사업이 막히면서 업비트(BTC마켓), 빗썸, 코인원에서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이다. 이후 글로벌 마켓 진출을 선언하면서 오케이엑스 등

https://m.news1.kr/articles/?5393910#_enliple

3. Blockchain Financial

'상폐'에 해외 전전하던 페이코인 투자자, 韓 시장으로 집결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됐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코빗이 페이코인을 거래 지원하기로 하면서, 페이코인은 1년 만에 국내 시장으로 다시 복귀했다.

이후 국내 보유자가 300만명에 달할 만큼 국내 시장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페이코인 의 시장 거래량은 국내 쪽으로 쏠리는 모양새다.

상장 발표 당일인 14일에는 해외 거래소에 페이코인을 보유했던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로 페이코인을 옮기기 위해 코빗 내 페이코인 지갑을 생성해야 했는데, 이용자가 몰리면서 지갑 생성 시간 지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페이코인의 80%가량이 코빗에서만 거래됐는데, 코인원이 1년여 만에 페이코인을 재상장하면서 국내 점유율은 더 상승했다. 30일 기준, 전체 페이코인 중 61.35%가 코인원에서, 37.95%가 코빗에서 거래되고 있다.

특히 이날 코인원에서는 페이코인 거래대금이 1000억원을 넘기면서 선두를 기록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코빗과 코인원은 이달 페이코인을 거래 지원하면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획득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라며 해당 프로젝트를 국내가 아닌 '글로벌 사업자'로 분류했지만, 페이코인은 국내 결제 사업 재개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페이코인은 여전히 대표적인 '김치 코인'"이라며 "해외 사업은 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느낌이고, 결국 최종 목적은 국내에서 페이코인을 활용한 결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 DaWinKS Overview

Blockchain Financial Technique



Digital ATM/DTM & Crypto ATM/CTM

- 블록체인 핀테크 플랫폼(DPEC)과 연동한 DTM, CTM & QR Pay POS 운영
- 전세계 여권 및 신분증 위변조 판별, 판독과 안면인식 -> 본인확인 고도화
- KYC, AML 체크 후 QR(Wallet) 발급
- QR(Wallet) Pay 연동 실물화폐 및 암호자산 결제 POS(App) 시스템
- Metaverse/가상세계 & IRL(In Real Life) /현실세계 연동 NFT, Defi 금융서비스 실현

특허 기반의 차별화된 DIGITAL ATM 기술



- 특허 기반의 독자적 신분증 위변조 판독기술로 KYC 완벽 구현 - 1차 본인인증
- 신분증(여권) 사진과 AI 얼굴영상(Liveness/2D,3D) 매칭 - 2차 본인인증
- 고도화된 본인인증(KYC) 기술로 불특정다수인(외국인포함) 대상 외환 혁신금융 서비스 제공
- 입출금·결제·환전·송금·충전·예금·대출 등 기존 금융 핀테크 + Crypto Defi 융합 플랫폼
- 전세계 유일의 가상자산과 명목화폐 동시 운영 ATM 플랫폼

2024-19호

Thank you

DIGITAL(CRYPTO) ATM · PAYMENT

DPEC PLATFORM

